미디어아트부터 학술대회까지 의상 스님 조명 잇달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해동화엄 초조 의상 스님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대형 미디어아트 전시와 학술대회가 잇달아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성원 스님)는 "의상 스님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해 '의상화엄 문화체험전 – 바다를 건너온 법성세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와 불교문화콘텐츠개발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의상화엄 문화체험전은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서울 토포하우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5월 30일 열린 학술대회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의상 스님의 화엄사상을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했다.

전시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의상 스님 진영(범어사 소장)' △의상 스님과 선묘 낭자의 '화엄연기'를 재현한 미디어아트 작품 △'오감으로 느끼는 나의 본래 모습'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체험 프로그램은 △'법성게'를 직접 써 보는 사경체험(집중과 몰입) △13세기 '법성게' 선율을 현대적으로 복원한 음악을 들으며 수행하는 듣기명상(호흡) △'일승법계도'와 '법성게' 사상을 거울 오브제로 구현한 법성체험(관법)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조계종 지화명장 정명 스님의 지화장엄작품 △서예가 다천 김종원의 '법성게 병풍' △평산 박청용 작가의 '호흡의 통로에서' 등이 전시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정명 스님은 의상 스님 진영단에 백련과 부채난을 천연 한지로 장엄해, 의상 스님의 관음신앙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화엄사와 불교문화콘텐츠개발원 측은 "의상 스님은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오척법성(五尺法性)'이라 표현하며, 지금 이 순간의 '나'가 곧 구래불(舊來佛)임을 설했다"면서 "이번 전시도 의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쓰기·읽기·그리기·듣기·걷기 등 몸의 감각을 활용한 체험 중심으로 기획됐다.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불교문화 체험의 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 소장된 의상 스님 진영. 가장 오래된 진영으로 알려졌다. **사진=국가유산청**

조계종 문화부 등 문화체험전
11월 14~23일 토포하우스서
'바다 건너온 법성세계' 개최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
'의상의 화엄 계승' 주제로
오는 11월 22일 서울대서

불교학연구회(회장 김원명)는 오는 11월 22일 서울대 인문대학 14동 203호에서 의상 스님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하는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학의 재조명: 의상의 화엄, 1400년의 울림과 계승'을 주제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의상 스님의 사상들을 수용사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학술대회는 정병삼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의상 연구의 현황과 과제'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의상계 화엄의 동교 개념-송대 화엄과의 비교(고승학, 서울대) △의천이 의상의 화엄사상을 어떻게 수용했을까(셈 베르메르스, 서울대) △조선 시대 의상 화엄의 전승과 연구사의 지형(김용태, 동국대) △일본에서의 화엄경문답의 수용(김천학, 동국대)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박수현(서울대), 이상엽(서울대), 박보람(충북대), 장진수(원광대) 교수가 참여한다. 종합토론은 정병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다.

'법정 스님 빠삐용 의자' 첫 '예비문화유산'

국가유산청 10건 선정안 가결
"법정 스님 삶 · 가치관 상징해"



〈무소유〉 저자 법정 스님의 '빠삐용 의자'가 첫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메달 및 증서' 등 10건도 함께 '예비문화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지난 2024년 9월 15일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근현대분과 소위원회)가 최초의 예비문화유산 10건에 대한 선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선정하여 훼손·멸실을 막고, 지역사회 미래 문화자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번 가결된 10건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순간과 인물, 사건, 이야기가 담긴 중요 유물들이 포함됐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선정에는 법정 스님의 유품인 '빠삐용 의자'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법정 스님 빠삐용 의자'는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이 1975년 송광사 불일암(佛日庵)을 지은 후, 이듬해 땔나무를 이용해 직접 제작하여 수행 시 사용한 의자이다. '빠삐용'이라는 명칭은 영화 '빠삐용'에서 주인공이 외딴섬에 갇혀 인생을 낭비한 것에 비춰 의자에 앉아 스스로 삶을 되돌아본다는 의미로 스님이 이름 지은 것이다. 이는 법정 스님의 삶, 가치관, 철학을 상징한다.

이밖에도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메달 및 증서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치료 및 간병도구 △의성 자동 성냥 제조기 △이한열 최루탄 피격 유품 등이 함께 선정됐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⑱ 유마방장

좁은데 왜 이리 넉넉할까?



〈유마경〉 '부사의해탈품'에는 주인공 유마 거사의 방, 이른바 유마방장이 소개된다. 그 방은 가로세로 1장(丈), 즉 약 3미터 남짓이었다.

유마 거사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붓다의 제자들이 그를 문안하러 찾아왔다. 그때 사리불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방 안에 의자 하나 없는데, 이 많은 보살들과 제자들은 어디에 앉는단 말인가?"

그의 마음을 읽은 유마가 말했다.

"진정 법을 구하는 이는 자신의 몸조차 돌보지 않습니다. 하물며 의자 따위에 마음을 쏟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마친 유마가 신통력을 일으키자, 그 좁은 방 안에 3만2천 개의 법좌가 들어왔다. 놀랍게도 그 많은 좌석이 서로 넉넉히 자리를 차지하고도 방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다.

이 일화는 환상도, 전설도 아니다. 유마의 방과 의자는 상징이다. 마음에 분별과 차별이 없고 자애로 사람을 대하면, 비좁은 곳에서도 번잡하지 않고 늘 넉넉하다는 뜻이다.

이와 통하는 선시가 있다.

"내게 하나의 주머니가 있으니,
넣고 또 넣어도 늘 여유롭고,
퍼내고 또 퍼내도 여전히 가득하도다."

동서양의 민담과 신화에도 이와 같은 '요술 주머니'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스 신화에는 '마르지 않는 주전자' 이야기가 있다. 제우스는 아들 헤르메스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프리기아 지방을 여행했다. 두 신은 여러 집의 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묵을 곳을 청했으나, 누구도 초라한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직 한 집, 산기슭의 초라한 오두막만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곳에는 늙은 농부 필레몬과 그의 아내 바우키스가 살고 있었다. 노부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정성을 다해 나그네를 대접했다. 식탁은 소박했으나, 그들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음식으로 차려졌다. 그런데 한 병뿐이던 포도주는 잔을 따를 때마다 다시 가득 채워졌다. 차별 없는 연민과 자비의 마음이 '마르지 않는 주전자'를 불러온 것이다.

필레몬과 바우키스의 이야기는 이후 수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괴테는 〈파우스트 2부〉에 그들을 등장시켰고, 고골은 단편 〈옛 기질의 지주〉에서 이 신화를 풍자적으로 재해석했다. 너새니얼 호손은 〈기적의 주전자〉에서 같은 모티프를 차용했다.

화려한 대저택에서도 고립과 적막 속에 사는 이가 있다. 반면 비록 좁은 집이라도 좋은 벗들이 드나들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

지금 나의 방은 어떤가. 과연 '유마의 방'인가?

〈화순 불암사 주지〉

조선 명필, 탁본으로 만난다

불교중앙박물관 온라인
'조선代 명필가 탁본'展
11월 10일~12월 28일

돌에 새겨진 조선 시대 명필들의 글씨를 탁본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스님)은 '2025년 금석문 탁본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11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온라인 전시 '조선 시대 명필가 탁본'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는 불교중앙박물관과 국가유산청이 함께 진행해 온 '전국 금석문 탁본 조사 사업'의 결과물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조사 사업을 통해 지난 12년간 925건 2600여 점에 이르는 양질의 탁본을 수집했다.

전시에서는 석봉 한호(1543~1605), 죽남 오준(1587~1666), 추사 김정희(1786~1856) 등 13인의 명필가가 쓴 비문(碑文) 탁본이 공개된다.

〈천자문〉으로 널리 알려진 명필 한호는 당대 공식 문서를 집필한 사자관 서체의 대표 인물로 꼽힌다. 한호의 '박소 신도비 탁본'과 그의 뒤를 이어 사자관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필력을 인정받은 죽남 오준의 '삼전도비 탁본'도 함께 소개된다. 오준은 병자호란 이후 청 태종의 공덕을 기리는 삼전도비 비문을 집필하는 등 조선의 국가적 기록을 담당했으나, 오늘날에는 비교적 생소한 인물이다.

전시는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museum.buddhism.or.kr)와 별도의 전시회 링크(buddhism-museum.web.app)를 통해 1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바로 잡습니다 1554호 8면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에서 무유공포(無有恐怖)를 무유공포(無有功佈)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습니다.

